

상용차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한다

‘전북도 상용차산업 발전협의회’ 제2차 회의 갖고 자동차기업 수요조사 결과 공유·1차 발굴 대응책 논의

상용차 핵심 소재·부품 육성,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 등 전북도 상용차산업의 방향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28일 ‘전북도 상용차산업 발전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상용차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세계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상용차 판매량 감소에 따른 부품기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도 상용차산업 발전협의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전북도는 지자체와 자동차 연구·지원기관, 완성차 및 부품기업 대표업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통해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구상에서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자동차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과 1차 발굴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조사결과 도내 자동차기업들은 ▲자동차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확대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단 운영 ▲정부 지원 기술개발사업과 연계지원 ▲전문인력 채용 지원과 양성체계 구축 ▲도내 유관기관과 협업기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는 핵심소재·부품 육성, 미래차 생태계로의 전환, 기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



전북도는 28일 ‘전북도 상용차산업 발전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상용차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해 집중 논의했다.

도는 앞으로 발전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병행 운영하면서, 상반기 내 상용차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력 양성 3개 분과로 각 5명씩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비전 및 목표 고도화, 사업완성도 제고, 사업 추가 발굴,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 작성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실무위원회에서 발굴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발전협의회에 상정해 정책 효과 및 실현 가능성, 예산 대책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후, 지속 가능한 상용차산업 발전방안을 만들어 나간다는 복안이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상용차 판매량 감소는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없겠지만, 어떤 문제도 해결책이 있다는 생각으로 머리를 맞대면 새로운 돌파구는 보인다”면서 “상용차산업 발전협의회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두원메디텍, 백신 접종용 주사기 납품

전북도 선도기업으로 질병관리청 27억원 규모 납품 기업 선정

전북도 선도기업인 (주)두원메디텍(대표 서효석)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관련 주사기 구매 사업에 납품 기업으로 선정됐다.

질병관리청은 27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주사기 납품 대상자로 도내 (주)두원메디텍을 지난 26일 최종 선정했다.

이에 (주)두원메디텍은 보건소, 위탁 의료기관 등 수요기관 지정장소에 28일 1차 50만개 납품을 시작으로 5차례에 걸쳐 오는 7월 30일까지 총 2,750만개를 납품하게 된다.

납품이 결정된 주사기는 23G 주사바늘의 매립식 1cc 1회용 멸균주사기로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을 접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정

량 주입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제작됐다.

(주)두원메디텍은 김제시 소재로 일반 주사기, 일회용 주사침, 수액세트, 수혈세트 등 의료용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해 국내 제약사에 관련 제품을 맞춤 제작해 납품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난 2019년 전북도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작년 초 직원의 가족이 코로나19 유증상자로 분류돼 격리되는 등 사업장이 폐쇄될 뻔한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관련 제품 개발에 착수해 백신 접종용 주사기 개발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이번 납품에 큰 의미가 있다.

유호상 기자

강풍·대설특보 대응체계 강화

전북도, 기상특보 상황 맞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전북도가 28일부터 도내 대부분 지역에 강풍과 대설특보 발효가 예상됨에 따라, 기상특보 상황에 맞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기상청은 겨울철로는 이례적으로 28일 오전부터 29일 새벽까지 해안지역에는 순간 최대풍속 90km/h 이상의 태풍급 강풍이 불고, 내륙에서도 순간 최대풍속 70km/h 내외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인명피해 예방 최소화를 위해 야외에 설치된 간판이나 공사장 철물 등 바람에 날아가거나 파손될 수 있는 물건의 고정상태를 점검하도록 시·군에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확보한 선별진료소에 설치된 천막이나 간판, 타워크레인 등 같은 시설물이 강풍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과 선박 등에 대해 안전조치를 긴급

실시했다.

또한, 도와 시·군은 출퇴근길 교통대란 방지 및 운전자 안전을 위해 도로로빙 예상구간에 대해 선제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28일 오후부터 29일 낮 사이, 눈이 내리면서 환파가 동반될 것으로 예보되기, 급격한 기온 강하로 내린 눈이 녹지 않아 출퇴근길 교통혼잡 등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시·군과 협조해 제설장비 217대, 인력 388명, 제설제 2,550톤을 투입, 426개 노선의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전북도 김양민 도민안전실장은 “요근래 불같이 온화했던 날씨가 강풍과 대설, 환파로 급변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은 태풍급 강풍과 대설·환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생활 주변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함께,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추진

전북도가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수역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나선다.

도는 새만금외지역 7개 시군(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을 대상으로,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등 전년대비 338억원 증액된 총 사업비 919억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4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28개소) ▲노후 하수관로 정비(85km) 및 정밀조사(20개소) 등이다.

먼저, 전북도는 생활하수 적정처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4개소에 158억 원을 투입, 일 1천1,070㎥ 하수처리가 가능한 시설로 증설한다.

또, 농어촌 마을의 수질개선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88억원을 투입해 28개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하수처리를 제고와 집중호우 시 침수방지, 주민보건 위생 향상을 위한 7개 시·군 하수관로 85km 정비에 563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에 10억원을 투입한다.

135km 하수관거 내부를 육안과 CCTV 조사를 통해 하수관거의 파손과 부식, 누수 등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불량 하수관거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생활오수를 처리, 하수처리장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해져, 궁극적으로는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전북학연구센터, 학술연구·학술대회 지원사업 공모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가 29일부터 오는 2월 19일까지 3주간 ‘전북학 학술연구지원사업’과 ‘전북학 학술대회 지원사업’ 두 건의 공모를 진행한다.

‘전북학 학술연구지원사업’은 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연구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전북학 학술연구 지원사업은 ▲후백제 관련 기획 논문 ▲전북의 인문·사회·자연 분야의 자유 논문 ▲대중·번역서 세 개 파트에서 총 12개 과제를 선정해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본 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6개월 동안 연구기간을 가진 후, 센터가 주관하는 학술성과발표회에 참여해 자신의 연구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

센터에서는 각각의 성과물을 ‘전북

학연구’와 ‘전북학총서’로 발간할 계획이며, 이를 센터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연구자와 도민 모두가 연구 성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여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통해 신진연구자를 발굴하고 육성해 새로운 전북학의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며 “학술대회 지원사업은 기존에 뛰어난 성과를 만들어 온 기상학자들과 교류해 전북학에 경쟁력을 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학 학술연구지원사업’과 ‘전북학 학술대회 지원사업’은 2월 19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해 유선하고, 자세한 내용은 전북학연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유호상 기자

고창 아산면 육용오리 농가서 H5형 AI 항원 검출

전북도가 28일 고창군 아산면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3만6,000마리를 사육중이며, 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

성 여부를 검사중으로, 판정에는 1~2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고병원성 AI로 확진 시 도내 15번째 발생이다.

전북도는 항원 검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하고,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역학조사와 함께 반경 10km 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중이다. /유호상 기자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우석대 원광대 **상담**
군산대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스피치·긴장해소·리더쉽·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복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민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민입니다.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검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음성학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가린, 단계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BN 출연 및 강연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 전주메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새롭고 멋진 스피치 노하우' 중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치료(주, 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주, 야간)	익산, 논산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쉽, 스피치지도사(자격증)	군산, 서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치료 등)(주, 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아)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